

한중일 인문 전통의 활용과 전망*

- 21세기 실학의 모색 -



김 경 미 (연세대학교)
<kimi@yonsei.ac.kr>



1. 서론

동아시아의 상호 학문적 연대와 통합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그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지속적 연구과제이다. 실학은 일찍이 세계화의 구도 속에서 성장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인문사회학적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인접 지역의 담론을 구축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이끌어 낼 주제로서 적절해 보인다. 이제 실학 연구는 전통적 가치의 강조나 한국, 중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연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정신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 배경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학 연구가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류사와 비교사상사적 접근이 필요하고, 한중일 세 나라에 있어서 유사성과 다양성, 그리고 혼합성을 보이는 효율적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여 이를 통한 활용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최근 인문학의 진흥과 관련하여 전통 인문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적지 않은 연구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실학은 새로운 인간상의 정립과 문화 수용의 능동적 자세, 지식인으로서의 소임 인식,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35C-2011-2-A00530)

사상·교육·철학·문학·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접근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참된 결합, 즉 다양한 요인들의 독자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다양한 구조들이 얹혀 만들어내는 전체의 인문사회학적 모습으로 조명될 수 있는 융합학문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심화된 개인 연구 뿐 아니라 협동적 연찬을 통해 얻어진 확대된 형태의 학적 성과물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삶의 지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구성원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수반될 때 인문학은 학문의 유용성, 사회적 환원, 그리고 지식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적극적인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인문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실학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자기 긍정과 자기 발전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정신과 삶의 양식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21세기의 인문학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그 주체를 보존할 수 있는 이념과 윤리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지식과 삶이 소통할 수 있도록 실천의 연계성을 지니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범아시아적 시각에서 한중일 인문전통이라는 과제를 한국 인문 전통의 복원과 재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삼국의 실학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전통 인문학을 살피고 현대적으로 실학을 재해석하여 아시아 인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고 활용 방식을 발견하는 작업은 우리의 인문학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사상을 구성해 내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 인문학은 문화원형으로서 풍부한 콘텐츠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물과 학맥, 교육 등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국학 자료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와 맞닥뜨릴 때마다 주변국의 선진문물과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했다. 더구나 다양한 학적 체계와 융합하여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인문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지적 전통의 면면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은 공간적으로 그 학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실학의 무대는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로 확장되었다. 동북아시아는 한국적 문제의식과 범아시아적 문제의식의 접합공간이 되어 왔다. 지역적·문화적 인접성과 상호 필요에 의해 연결망을 형성해 왔으므로 이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활용할 경우, 대안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문화양식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실학은 중세 해체기의 자생적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학문이기도 하며, 중국·대만·일본·베트남 등에도 이와 유사한 학문적 조류가 존재했으므로¹⁾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을 구성하려는 최근 범아시아 담론의 노력에 한국의 실학이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근거가 된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인문전통을 활용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학문적 연대와 상호협력이라는 공동의 전망을 도모할 수 있는 학적 근거를 마련해 보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한국 실학 연구의 전망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학에 대한 각성으로 실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다.²⁾ 따라서 실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그 평가에 따른 실학의 이미지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왔다. 이를테면 근대적 사유, 개혁사상, 실증·실용·실리주의, 역사의식, 과학기술, 자주의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가 실학의 구체적인 이미지로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현재 시점에 걸맞은 생생한 감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다지 살아있는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한국

-
- 1)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모두 실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념정립과 배경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 “실심실학(實心實學)의 형성과 발전”, 『에도시대의 실학과 문화』, 경기문화재단, 2005, 246. ; 오가와 하루히사, 『한국실학과 일본』, 한울아카데미, 1995, 20. ; 葛榮晉, “중국 실학연구의 몇 가지 문제”, 『실학사상과 근대성』, 예문서원, 1998, 203. ; 潘暢和, “실학 개념에 대한 역사적 검토”, 『실학사상과 근대성』, 예문서원, 1998, 173. ; 潘大尹, “월남의 유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기 월남 유학의 특징 및 ‘실학’의 취향에 대한 고찰”, 제4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1996, 89. ; 詹海雲, “대만지구의 실학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와 전망”, 제4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1996, 19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2) 실학연구는 1930년대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논저가 단행본 두 권으로 출간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성과를 이루었다. 조성을 외, 『실학연구 논저목록 상·하』, 경기문화재단, 2005. 최근 실학연구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 없지 않으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대동문화연구』, 42, 2003. 동아시아의 구도 속에서 실학을 조명하고자 하는 경향도 주목할 수 있다. 한국실학학회, “실학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제7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2002. 조성을, “동북아 시대의 실학 개념과 향후 연구방향”, 『국제실학학술회의 논문집』, 경기문화재단, 2003. 송영배 외, 『한국 실학과 동아시아 세계』, 경기문화재단, 2004. 주철성, 『한국 실학과 동아시아 실학 비교』,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송재소, “동아시아 실학연구가 가야할 길”,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12, 2006 등.

인문학의 활동은 전통적 학문을 내재적 발전론의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출발하였다. 21세기 초의 한국사회는 이미 큰 변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문제, 적응이 힘들 정도로 변화하는 상황의 속도감 속에서



개인이 자기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는 문제, 인문정신을 근간으로 한 패러다임의 구축 방법,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 세계화 시대에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다문화를 개방적으로 대면하는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은 윤리를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이제 20세기 인문학의 화두였던 내재적 발전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세계적인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조의 변화에 못지않게 그 구조 속의 개인이 위기를 실감하는 상황에서 민족단위적 관점이란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한국의 인문 전통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주요한 시점마다 창조와 혁신으로 자기성장에 필요한 논리를 구축해 왔던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섬 지역에서 독자적인 자기 문화를 개척해 왔던 일본이나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과 수용, 창조와 자기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의 인문 전통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인문학을 정립해 나가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21세기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문적 전통을 확대·심화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인문주의가 복원할 고전적 가치 가운데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인간성의 회복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관심인 동시에 인간에 의한 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³⁾ 한국 인문학의 특징은 인간의 존재감을 중시하고 인문적 삶을 통한 정신적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웃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자기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필자는 한국 인문 전통의 재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중일 실학을 검토하고

3) 장희익, 「동서양 학문의 인식구도적 특성」, 『삶, 반성, 인문학』, 장희익 외. 서울: 태학사. 2003. 47.

이로부터 21세기 한국 인문학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 인문 전통의 특성을 가장 풍부하고 확연하게 살필 수 있는 학술적 조류가 조선 후기의 실학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학은 격동과 위기의 시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발적 문화인 동시에 사상이었다. 이때의 위기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넘어 서구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문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주체의식과 개인의식을 긍정하고 포용하는 문제, 종래의 자연관 혹은 과학기술관을 넘어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찾는 방식 등이 뒤얽히면서 조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사회와 조선인들이 누려오던 사회·경제적, 사상·문화적 경계를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경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살 것인가의 결단을 제기하는 문제였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전통의 문화와 외래의 문화를 포용하고 절충하는 방식으로 사상과 문화에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 나갔다.

전통과 신문화의 융화, 문학·역사·철학,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통합의 결과물이 실학이었다. 실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자존감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인문학과 자연과학⁴⁾, 전통학문과 신학문을 아우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실학은 이처럼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격의 분과 학문으로부터 창출된 통섭적 특성을 지닌다.

실학은 이미 동서 문화의 통섭을 통한 문화 확충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주자학자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하며 시대 상황에 대응하려던 고착적 태도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결국 조선 후기 실학은 끊임없이 경계를 확장하며 자기 혁신을 도모한 창조적 주체들의 지적 산물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실학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하며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는 한국의 상황에서, 그리고 거의 무한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인문학의 대중화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급한다는 단순한 의미만은 아니다. 이는 한국 전통 인문학의 존재를 일반인과 학문·사상계에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대인의 삶과 학문 활동에 통합시키자는 설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 인문학을

4) 동양의 전통적 학문은 자연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인문 분야의 지식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대립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식, “동양 전통학문 속에서의 ‘자연과학’과 ‘인문학’”, 『지식의 지평 2: 인문정신과 인문학』 서울: 아카넷, 2007, 45.

새롭게 해석하고 구성하여 보급하기 위한 창안이 필요하다. 대중은 자기 삶의 주체이고, 공동체의 주인이다. 사회의 문제적 징후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대중이다. 학문과 사상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근대화 발전 전략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들은 거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문화의 혼종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서구 근대 학문 사상은 분절되었고, 전통 학문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근대화 담론은 빛이 바랬지만 근대화를 넘어서는 사회와 개인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구적인 가치는 학교 교육의 주요한 이념이 되었지만 개개인의 자기 성찰과 윤리의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반면에 여러 전통 문화적 요소들은 한국인의 관습과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학문적 조명이나 사회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게 갖지 못한다.

인문학의 대중화, 전통의 발굴과 소통 방식은 단순한 복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 인문 전통의 대중화는 이제 근대 학문 언어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시대정신의 창조를 위한 실학 연구

실학 연구는 새로운 근대사회의 조명과 함께 학문의 시대적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던 편이다. 일제 강점기의 실학연구는 주자학이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던 이 시기 조선 사회의 학문·사상·문화 풍토를 쇄신할 수 있는 대체 사상을 한국 전통의 학술과 문화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이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는 데에 필요한 인문 정신의 구현이었다. 한국역사 혹은 경제사학자들이 연구방향을 설정하면 국문학과 철학연구자들이 그 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다.

20세기 한국사회에서의 실학 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념과 방법에 기초하여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고 체계화했던 일련의 사상을 ‘실학’이라 부른 후에 그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20세기 한국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학은 근대성의 맹아, 진보적 국가개혁사상, 국가이상론, 그리고 전근대 최후의 국가개혁론 등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실학의 학문체계는 자연과학적, 기술적, 의학적 주제들까지 내포하는 인문적 탐구방식이

기도 했으므로 동양 전통과학과 자연관이 지니는 통섭적 인문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과학지식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 이념의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⁵⁾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동감 있는 오늘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실학자들이 고민하며 개척했던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제가의 경우에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이익의 추구하고 상업 활동이 갖는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⁶⁾ 즉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을 조화롭게 갖추고 실천하는 인간을 염원하였다. 이것은 주자학의 억상공관(抑商觀)과 결부된 인간 이해와는 양상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실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과 주체,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종래 조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실학자들은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도와 법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또한 개인의 윤리 도덕적 성숙과 연관하여 끊임없이 강구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자와 실학자가 실제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인격 성장에 성리학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속적 관심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문학적 요소 가운데 자연과학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들이 자연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적 장치들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그 밖에도 과학 지식이 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이념에 관한 부분도 과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된다.⁷⁾

근대 이후의 인문학은 과학과 연속되고 단절되는 이중적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인문학의 자리매김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지만,⁸⁾ 이제는 개별 단위로 성숙해 온 근대 학문세계의 방법론을 지양해야 한다. 민족 단위로는 학제간의 통섭과 융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인근 주변국과의 학적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인간다운 삶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안정한 삶의 모순을

5) 이중원.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과학 교육”. 장희익 외. 『삶, 반성, 인문학』. 서울: 태학사. 2003. 172.

6) 김경미. 『박제가의 시문학 연구』. 파주: 태학사. 2007. 26-27.

7) 이중원.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과학 교육”. 장희익 외. 『삶, 반성, 인문학』. 서울: 태학사. 2003. 180. ; 실시학사(實是學舍). “조선 후기 실학사의 재조명”. 제1회~제4회 실학 연구 공동발표회. 성균관대학교. 2012~2014. 참조.

8) 정호근. “인문학의 위상 변화와 가능한 인문학 및 그 기능”. 장희익 외. 『삶, 반성, 인문학』. 서울: 태학사. 2003. 259.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의 필요성 또한 시급히 요청된다. 인간과 주체를 중심으로 한 실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책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한·중·일 인문전통의 소통

소통과 실천 방법,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작업이 전통 인문학의 현대화와 대중화이며,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실학을 21세기의 실학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21세기 실학을 구성해냄으로써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상호 공감하는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지닌 인간으로서 자신을 주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학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공통된 인식기반으로서 사상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실학은 일찍이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태동되고 성장한 학술사상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 3국이 정신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실학이라는 용어는 중국 송대 유학자들에 의해 창시되었으나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⁹⁾ 실학에 대한 연구사를 보면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한국이 단연 선구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실학은 조선 후기에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형성하고 학문의 주체를 확장한 창조적 학문 조류였다. 시간과 공간에 따른 실학의 면면을 밝히는 작업은 실학을 새롭게 구성하여 대중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재해석의 필수 요소가 된다.

4.1. 중국의 문화전략과 인문학 활용

4.1.1. 중국의 역사발전과 전통

중국이 과거에 동아시아의 문화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와 도교, 불교의 전통

9) 丁冠之, “儒學(實學) ‘趨時變通’, ‘和諧包容’의 思想과 尙德精神”, 제7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2002. ; 麻生利勝, “東アジアにおける‘個’の問題”, 『유교문화연구』 8,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9. 참조.

인문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조직과 인사, 통치자의 리더십,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인문학을 중심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인문학 정신의 토대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로부터 확립되었고, 이는 풍부한 정신자산으로서 자국의 전통문화 속에 융합되어 후인들에 의해 계승, 발양되었다.

한(漢)은 한민족의 정신적 동질성인 중화사상을 확립하였다. 한나라는 560년에 걸친 춘추전국시대와 진(秦)의 분열과 전쟁을 평정하고 통일 왕조를 세웠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의 정치이념과 윤리도덕, 그리고 왕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론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문학적 전통은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들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이 정치이데올로기는 동중서(董仲舒)가 유학의 이념을 법가사상과 혼합하여 정립한 하나의 사상이자 정치이념이었다. 현재 중국의 ‘중화사상’은 동중서의 이론에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는 비록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고,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문학을 장려한 데에 힘입은 것이었다.

세계국가로 발전한 당(唐)에서는 대대적인 불교연구가 진행되는 동시에 불교가 중국의 전통사상인 도가사상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상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화엄학이라는 중국적 불교사상이 정립됨으로써 중국인들의 인생과 세계관이 정립되었다. 즉 인도의 불교에서 현세간적 사상으로 변모함으로써 현실공정의 정신을 창도하고, 이를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당나라는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서역과 로마까지 교류하였다.

송(宋)대의 성리학은 유교, 도교, 불교 삼교를 통일한 철학사상의 집대성이었으며, 사회개혁론의 출발이었다. 이때 새롭게 형성된 성리학은 당시의 사회개혁을 위한 이론발전의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중국의 전통 인문학에서 학문적 방법론은 종합적이었던 반면에 성리학은 분석적이었다. 성리학을 통하여 중국의 인문정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며, 공자의 인문정신의 외연을 확대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학은 공자에 의하여 배태되고 신유학과 양명학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조선의 이황(李滉)과 이이(李瑄)에 의해 개화되었다가 다시 조선후기의 실학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4.1.2. 현대 중국의 인문학 정책

동아시아의 인문 사상을 대표하는 유학과 그 창시자인 공자는 시대에 따라서 추앙되기도

하고, 폄하되기도 하였다. 특히 인문학의 암흑기였던 문화혁명기에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철학을 이해했으며, 물질이나 정신이나 곧, 경제와 도덕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유학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도덕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를 공자의 사상에서 다시 찾고자 한다.

21세기 초에 중국은 대대적인 공자선양사업을 시작하였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공자학원 대회에서의 선진공자학원상 시상이라든지 공자학원 및 문화사업 등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행사이다.¹⁰⁾ 중국에서는 2005년 9월에 공자 탄생 2,556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중국곡부국제공자문화절(中國曲阜國際孔子文化節)을 개최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0년대 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적으로 공자가 차지해야 할 위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 행사에는 국가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중국중앙방송(CCTV)을 통하여 4시간 동안 생중계되는 등 중국에서 가장 국제적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곡부(曲阜)의 삼공(三孔:孔府·孔廟·孔林)이 1994년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래, 2005년에 인민대학(人民大學)에는 국학원(國學院)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에 중국사회과학원에는 유교문화연구중심(儒敎文化研究中心)이 생겨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중적으로는 『논어(論語)』 낭송대회 및 유교 경전읽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성균관에서 행해지던 공자추모 행사인 석전제(釋奠祭)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교행사의 문화재였다. 이제는 이 행사를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4.1.3. ‘공자 아카데미’를 통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칼 막스의 고향인 트리어시에도 독일에서 여덟 번째인 공자학원이 세워졌다.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에 공자아카데미가 설치되는 등 이미 한국에는 17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있다. 쉬린(許琳) 중국국가한판(中國國家漢辦) 주임에 의하면 2011년 5월에 101개 국가와 지역에 공자학원 340개, 공자학당 400여 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며,¹¹⁾ 외국으로부터 공자학원 설립 문의 이메일을 하루 평균 40통씩 받는다고 싱가포르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10) 주성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148-152 참조.

11) 쉬린(許琳), 『중앙선데이』 제220호, 서울: 중앙일보사, 2011, 5.

있다.¹²⁾ 중국은 2020년까지 공자학원 숫자를 1,300개 이상 늘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 인문학과 문화교류를 위해 유학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전통 인문학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제고를 추구한다.¹³⁾ 현재 중국은 ‘공자 아카데미’를 통하여 문화수출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북경에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모여 “중국-아프리카 협력논단(FOCAC: Beijing Summit of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개최하였고, 후진타오(胡錦濤)는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케냐 나이로비대학 등에 ‘공자 아카데미’를 건립하였으며 이미 세계 64개 국가에 무려 210개의 공자학원이 세워져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¹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국시(國是)로 삼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틀에 묶여 있지 않고, 등소평 시대를 넘어 과감히 자유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지향한 중화사상의 확장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새로운 인문학의 아젠다를 통하여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국가윤리를 확립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 때 그동안 다른 올림픽 개최국이 참가국 입장 순서를 현지 발음의 영문 알파벳으로 정해 왔던 관행을 깨고, 한자의 간체자(簡體字) 획순에 따라 결정했던 것도 중국 인문학의 이른바 ‘차이나 스탠다드(China Standard)’의 전면적 부상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4.2. 일본의 인문학과 문화정책

4.2.1. 인문학의 장려

일본 학술진흥회의 인문사회프로젝트 개요에 따르면¹⁵⁾ 일본의 역사에 축적된 다양한 지적 자산의 가치를 재확인하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과제의 기원을 밝히고 분석하는 연구 수행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후 일본사회를 지탱해 온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12) 쉬린(許琳), 〈聯合早報〉, 2010. 7. 11, 싱가포르.

13) 孔子學院, 〈關於2010年孔子學院總部工作計劃的滙報〉 2010. 2. 16.

14) 주성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155-157 참조.

15) 송재준,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 보고서, 2007, 133.

위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영역이 마련되었다.

또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특성 및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책의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진흥에 관하여(보고): 대화와 실증을 통한 문명 기반형성으로의 길”이라는 과학기술, 학술심의 회 학술분과가 설치되었다.¹⁶⁾ 일본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과제로서 역사 및 사회에 근저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과제 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체제를 정비하고 특히 일본의 학술적 전통으로부터 인문사회학적 학술 기반을 충실히 한 것이다.

일본의 일본식 서구화는 실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찍이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로(脫亞入歐)”를 외쳤던 일본은 서양 근대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여 아시아의 선진계열임을 자임해 왔다. 일본의 근대화는 단순히 서양의 기술문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유학과 불교를 실천적 학문으로 개조하였고,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자신들의 실천적 이용에 맞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정신은 바쿠후(幕府) 지도자들의 인문학 장려로 확립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이들은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 인문학을 장려하였고, 이를 구체적인 국가개혁의 중요 이념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화(大和)사상으로 이를 결집하였으며 이러한 일본의 정신은 실생활에서 ‘깔끔한 끝맺음 정신’으로 나타난다.

일본 인문학의 특징은 내재성을 강조하고, 문맥적 실용주의를 중시하며, 이성이 지식의 기초로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론과 병행하고, 문헌적 권위만을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무엇보다도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주자학의 이기론(理氣論)같은 보편적·추상적인 이론에 몰두하기 보다는 이른바 예도(藝道)라고 하는 무예나 줄타기, 그림, 서예, 공예, 무용 등 구체적 분야에서의 실천적 경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일본의 전통사상으로 정립된 실용주의에서 실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다른 학문적 영역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16) 이 위원회는 일본(日本)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科學技術, 學術審議會’ 하에 2007년 5월 설치된 이래, 사회의 발전기반 형성을 위해 철학, 역사학, 문학, 일본연구, 문헌학, 과학사 등 일본의 학술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인문학 및 사회학의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지원 및 기획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인쇄물, 日本 文部科学省 研究振興局 振興企画課, 日本: 東京, 2010, 1, 20, 1.)

일본에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모두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지향적이고 순수철학적인 전통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면에, 실용성과 실천주의, 사회정치적 관련성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통 인문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4.2.2. 근대 일본의 형성과 실학

17세기에 도쿠가와(德川)의 에도(江戸)막부는 일본의 통일정권을 확립하고 주자학을 공식적으로 후원하면서 체제를 정비했다. 이것은 근대적 정치 환경에서 통일국가를 건립하는 데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주자학에 맞서 고대의 학문을 지향하는 고학(古學)이 태동하였으며, 중국학에 대립되는 일본 고유의 학문을 지향하는 국학(國學)이 형성되었다.

고학은 인문정신을 추구하는 일본적 유학연구로서 고학자들은 주자학과 양명학 모두를 비판하고 경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국학(國學)은 일본의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학문태도를 지향하였다.

주자학에서 고학으로, 고학에서 국학으로 이어지는 일본사상의 흐름은 중국주의와 일본주의의 갈등을 거쳐, 중국주의로의 쏠림현상, 그리고 일본주의로의 회귀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일본의 사상과 전통 인문학은 16세기 후반부터 일본적인 고유한 특징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19세기에 이르면 일본은 유교 고전의 독자적 해석에 있어 당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서양학문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난학(蘭學)을 마련하게 되었다.

난학은 일본이 서양의 근대문화를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는 중심사상이었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하는 일본의 실학이다. 한때 쇄국정책을 펴긴 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개항을 하여 서양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습득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럽으로 파견하였고, 유학 후 귀국한 학자들은 서양학문의 용어들을 근대적 한자어로 번역하여 유통시키고자 했다. 한국의 근대학문은 근대 이후 일본의 이러한 번역작업에 힘입은 바 크며, 이 점은 일본의 인문학적 기반이 근대시기에 한국이나 중국보다 건설했음을 의미한다.

일본 근대화의 바탕이 된 실학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일본 인문학 창조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실학은 무조건적인 서구 따라 하기를 극복하고, 앞서 이루었던 자기들의 전통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사상으로 발전시켰고 일본의 인문학 정신에 흐르는 실용주의에 매우 유익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4.2.3. 현대 일본의 문화전략

일본은 문화청(文化庁) 주관으로 신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청은 일본의 문화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특히 인문과학적 측면에서 전통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청은 문화·예술·문화재·문화교류·국어정책·출판 등 일본 문화의 정책개발 및 대중화를 총괄하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 신문화입국을 대대적으로 지향했다. 1996년에는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서 ‘Art Plan 21’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문화정책을 통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로 ① 국제문화교류(대외문화정책)의 확대, ② 평생교육과 문화, ③ 지역개발과 문화, ④ 산업경제와 문화 콘텐츠의 결합, ⑤ 정보사회와 문화, ⑥ 문화의 관광상품화, ⑦ 문화의 사회복지화, ⑧ 다양한 지방문화의 전개, ⑨ 문화정책의 법률 확립과 문화예산 증가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의 문화전략은 정부기관의 종합적 협동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 계획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현대 일본의 문화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 일본의 문화전략은 문화의 자립성을 최대한 배려한 행정 조직, 평가 시스템, 수속 등의 체계적 전략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일본의 전통인문학의 형성과 현대의 문화정책에는 철저히 실용성을 중시한 실학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사상의 집합체로만 여기지 않고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본화를 향해서 집중하였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일본의 전통 인문학과 문화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5. 실학 연구 지평의 전환을 위하여

한국의 인문학은 문화원형으로서 풍부한 콘텐츠를 지니며, 통시적·공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복합적·다의적 문화현상의 역사적 지속성을 지닌 메타 인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의 실학 관련 고전·원전 텍스트는 그러한 문화 요체의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양질의 도구상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의 틀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고 확산되는 교계지로서 인문사회학의 허브에 한국이 자리잡아야

한다. 과거의 전통을 새롭게 불러내어 창조적 미래 구상을 할 때 한국의 담론은 동북아시아학의 주체적 수립자 역할을 할 것이며 점차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로까지 그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인문학은 문화원형으로서 풍부한 콘텐츠를 지니며, 통시적·공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복합적·다의적 문화현상의 역사적 지속성을 지닌 메타 인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의 실학 관련 고전·원전 텍스트는 그러한 문화 요체의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양질의 도구상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의 틀을 창출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은 국가의 발전전략을 전통 인문학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인문학의 바탕이 곧 실학이었다.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중국과 실학의 나라인 일본은 국가발전의 전략을 철저하게 실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기 위한 주요한 소프트 파워 자산에 전통 인문학을 복원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¹⁷⁾은 매우 눈여겨 볼 만하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전통적 요소의 중요성을 적극 인지하였고, 장쩌민(姜澤民) 또한 인문전통의 복원에 역점을 두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진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선상에 올려 놓은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중국문화발전 청사진을 담은 ‘국가 제11차 5개년(2006-2010) 개발계획 문화발전계획 요강’을 발표하여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¹⁸⁾

18·19세기의 한국 사회에는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뛰어난 학자들과, 그들이 다듬어 왔던 인문학의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근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국권을 상실한 채 혹독한 민족적 시련을 겪었다.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정신의 함양과 세계 속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인문지식을 보존하는 일만큼이나 인문지식을 창안해서 유통시키는 유용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발전을 추동한 실용주의나 독일의 정신을 대표하는 합리주의처럼 한국의 인문학적 총체성을 대표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17) 주성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96.

18) 주성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39.

제도와 방안을 고루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의 인문학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공리주의·실용주의·합리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훌륭한 인문 전통 사상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는 중국의 성리학을 조선 건국의 기초로 실천하고, 성리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조선 성리학이 존재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 활기를 잃게 된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인문정신을 발전시킨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기라성같은 실학자들이 있다. 비록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약 170여 년을 뛰어넘어 그들이 지녔던 인문정신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약용 뿐 아니라 한국 전통의 인문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많은 선각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남긴 풍부한 양의 문헌기록도 충실히 보존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학문과 전통 사상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실학을 글로벌 콘텐츠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실학연구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를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실용성이라는 실학정신의 본령이다. 이제 실학 연구는 실학을 어떤 특정한 학파와 사상으로 제한시키지 않으면서 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당대의 사상들을 유연하게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실학의 재발견은 한국의 학문적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한국의 미래의 실용적 사상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되는 한국 실학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실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한국의 인문정신을 고양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학문적·문화적 공통성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실학은 동아시아의 공유사상이기 때문에 훌륭한 전통을 재해석하는 일은 ‘아시아적 가치’를 한층 끌어 올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다.¹⁹⁾ 이를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중국·일본·베트남 등으로 확대된 동아시아 전근대 학문의 복원과 현대화라는 공통의 아젠다 설정과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실학을 대중화하는 작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실학을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전통학문의 정수로서, 화합과 창조정신의 발로로서, 그리고 한국을

19)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국제적 현상 혹은 지적인 운동으로 출현했던 실학의 양상에 대하여는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181; 張學智, “中國實學的義涵及其現代意義”, 국제실학학술대회 발표집, 경기문화재단, 2003,을 참고할 수 있다.

대표하는 사상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돕고 한국학을 세계화함으로써 한국의 지적 전통을 이미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실학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와 문제적 징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실학자들의 저술은 한국 전통사회가 발전시켰던 높은 수준의 실용적 학문으로서 지침서의 성격이 중시되었다. 대중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문적 삶’에 필요한 자원을 실학으로부터 발견하는 데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새롭게 진행될 실학연구는 미래 한국의 인문정신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실학에서 한국의 인문학적 전통을 찾고, 이를 20세기의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간 축적된 실학연구의 성과는 방대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문(文)·사(史)·철(哲)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학 연구가 일제의 식민지 논리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 고유의 근대성 발굴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학적 관점의 이해가 주류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국문학과 철학적 방면에서의 연구는 깊고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학자들의 기초 공부였던 유학 혹은 성리학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절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우리는 중국도 세 개 밖에 지니지 못한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을 여섯 개나 가진 문화국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조선후기의 유명·무명의 많은 실학자들이 남긴 방대한 자료가 있다. 그만큼 한국에는 훌륭한 인문학의 전통이 있고 그 정신 유산이 풍부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연구자들에 의해 분과 단위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문화선진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국가적 전략으로서 인문학의 부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이제 실학을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로서 인문학 전통의 재해석을 시작함으로써 미래 실학이라는 학술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실학의 깊고 넓은 연구 성과를 끌어안으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찾아보려는 새로운 지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문학의 수입국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인문학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문학 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각의 연구 방법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일본·베트남과 함께 ‘범아시아 전근대 학문의 해석과 현대화’ 등의 아젠다를 설정하여 공동의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면 더욱 수준 높은 학술 문화콘텐츠로서의 발전도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이렇듯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면 실학자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화가 촉진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학연구의 결과를 집대성하여 이러한 지적 자산을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획 연구가 요구되며, 범아시아적 공유체계와 국제화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실학은 이제 ‘번역되어’ 국내외 연구자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 교양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인문학은 그 자체가 삶이며, 역사이며 사상이다. 그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면서 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문전통이 지닌 역량을 객관적이면서도 충분히 가늠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인접 지역의 담론을 구축할 때 아시아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창안할 것이며, 총체적인 연구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인문학의 위상 제고와 아시아의 선도적 학문 공동체 구현은 실학이라는 한국 인문학의 아이콘화를 통한 대중과의 접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권역별 연구 뿐 아니라 인문과학의 복합 연구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동아시아 담론이 한층 활성화되고 아시아 인문학의 지형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6. 맺음말

실학의 문화적 복합성은 오늘날 실학을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실학이 이러한 종합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전통 학문이라는 점은 동아시아와 한국 전통 문화로 문화적 자원을 넓혀나가려는 한국 인문학의 현재적 요구에 부응한다. 또한 실학은 동아시아 사회의 자생적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의 인문 전통 재구성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30년대, 일본은 1960년대, 중국은 1980년대에 실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각국이 단일적으로 진행하다가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한중실학사연구』, 한국실학연구회, 민음사, 1998. 등을 공동으로 출간하였고, 실학국제학술대회를 3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나, 이미 각국이 이루어낸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에 비하면 공동연구성과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실학은 이제 '쉬운 현대어로 번역'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실학의 재해석과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실학은 상당한 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실학은 중세해체기의 한국 전통 학문으로서 오늘날 대중과 가장 접촉하기 쉬운 학문·문화 영역을 개척하였다.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 양식과 결합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한국인의 문화적·사상적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활용했던 실학의 개념과 이론, 인격 수양에 활용한 실천적 방식은 현재적 시점에서 자생적 학문하기의 이론적 자산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실학이 한국의 인문 전통으로 생명력을 계속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문학 전공 학자들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벌 문화콘텐츠로서 이를 대중화함으로써 한국 인문 전통의 연구 주체를 중국과 일본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실학 자체가 동아시아 학문 문화 주체의 산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실학은 근대성의 측면에서 조명되었기 때문에 실학과 실학자의 삶이 지닌 풍부한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실학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실학자의 문제의식과 실학자의 삶의 태도, 그들의 미적 감수성, 사회적 교류와 정치적 역할까지도 다시 조명하여 21세기의 문제의식에 합당한 의미와 연관관계를 밝혀내어야 한다.

한국 전통 인문학의 정수이며, 조화와 창조정신의 발로인 실학을 재발견하고 이를 21세기적 인문정신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현재 한국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정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를 움직일 시대정신을 계발하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명 개념이나 지리 개념을 떠나 아시아적인 공통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슬로건에 학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공동 실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담론을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실학거점연구소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공자 아카데미”나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 기획, 일본 문화청의 “Art Plan 21”이나 문부과학성의 “바다와 아시아” 프로젝트 등 중국과 일본은 유학이나 실학 등의 전통 인문학에 근본을 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전통문화에 기반한 학문적 대응과 가치 창출이 빈약한 편이다. 경제 논리가 중심이 된다면 인문학의 창조성은 약화된다. 이에 한국의 전통 인문학을 현대화하여 재구성하고, 그 성과에 근거한 동아시아관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인문학의 위기에 관련된 논의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있어 오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중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이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인문학의 부흥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훌륭한 인문학 전통을 지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대에 맞는 문화적 콘텐츠로 충분히 재창조해 내지는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인문학의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시대정신과, 사회와, 보편적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천의 연계성을 지니면서 정신적 삶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에 다시 읽는 한중일 실학은 실천적인 지식으로서 한국 인문학 진흥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기 성찰의 능력을 제고하며 창의적 상상력과 심미적 감성을 배양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인류 세계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갖게 한다. 또한 자유롭게 개인의 역량을 가늠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 사회 안에 살면서도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판단력을 갖게 해 주리라 판단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문학 전공자는 우선적으로 자기 사회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확대·보급할 책무를 가진다. 실학의 현대화를 통해 개인의 정신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이를 세계화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문학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지만 인문 ‘지식’은 보존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창안과 생산의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유용한 학문으로서의 가치 창출이라는 트렌드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축적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성과의 확산과, 연계연구를 통한 사회적 실용성 확보라는 적극적 의미를 갖게 될 때 인문학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한층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학은 중세해체기의 동아시아 학문 조류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듯이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실학의 연구 대상을 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여 이를 매개로 동아시아 전근대 학문이 지닌 공통의 기반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근대 공통의 학문 기반은 이의 재해석과 현대화라는 공동의 아젠다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학문 사상 발전방향의 공동 모색이야말로 아시아의 연대 형성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전통 인문학과 언어, 문화를 전 세계에 8개국 언어로 전파하고 있는 인터넷 공자학원이나 방송공자학원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성별, 인종,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미국인이 인문과 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립 예술 인문의 달(National Arts & Humanities Month, 2012. 10)을 선언했던 일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김경미. “역사인물탐구: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융감한 비주류”. 『일간중앙 WIN』. 중앙일보사. 1998.
- 김경미. 『박제가 시의 연구』. 파주: 태학사. 2007.
-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5.
- 송재소. “동아시아 실학연구가 가야할 길”.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12. 2006.
- 송재준.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 보고서. 2007.
- 실시학사. “조선 후기 실학사의 재조명”. 제1회~4회 실학연구 공동발표회. 성균관대학교. 2012~2014.
- 심경호.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한국한문학에 나타난 실학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한국실학연구』. 5. 2003.
- 이동환. 『실학시대의 사상과 문학』. 파주: 지식산업사. 2006.
-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42. 2003.
- 장희익 외. 『삶, 반성, 인문학』. 서울: 태학사. 2003.
- 전통과 현대사. 『전통과 현대』. 2000 가을호.
- 조성을 외. 『실학연구 논저목록 (상·하)』. 경기: 경기문화재단. 2005.
- 주성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최종덕. 『인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서울: 휴머니스트. 2003.
- 한국실학연구회. “실학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다가갔는가?”. 경기문화재단. 『실학학술대회 논문집』. 2006.
- 한국학술협의회 편. 『지식의 지평』 2·3. 서울: 아카넷. 2007.
- 홍원식 외. 『실학사상과 근대성』. 서울: 예문서원. 1998.
- 許琳. 『중앙선데이』 220호. 서울: 중앙일보사. 2011. 5.
- (인쇄물) 日本 文部科学省 研究振興局 振興企画課. 日本: 東京. 2010. 1. 20. 1.
-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 “실심실학(實心實學)의 형성과 발전”. 『에도시대의 실학과 문화』. 경기문화재단, 2005.

- 麻生利勝. “東アジアにおける‘個’の問題”. 『유교문화연구』 8.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9.
- 葛榮晉, “중국 실학연구의 몇 가지 문제”. 『실학사상과 근대성』. 예문서원. 1998.
- 潘大尹. “월남의 유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기 월남 유학의 특징 및 ‘실학’의 취향에 대한 고찰”. 제4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1996.
- 丁冠之. “儒學(實學) ‘趨時變通’, ‘和諧包容’의 思想과 尙德精神”. 제7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2002.
- 張學智. “中國实学的义涵及其现代意义”. 국제실학학술대회 발표집. 경기문화재단. 2003.
- 孔子學院. 〈關於2010年孔子學院總部工作計劃的滙報〉. 2010. 2. 16. 중국 : 중국문화원.
- 〈聯合早報〉. 2010. 7. 11. 싱가포르.

● 투고일 : 2014. 6. 30 / 심사일 : 2014. 7. 3 / 게재확정일 : 2014. 7. 18

A Prospect for Rediscovering and Employing a Humanistic Tradi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 Prospect and Search in Studying the Practical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

Kyoung mi KIM (Yonsei University)

The Practical Learning (sirhak) school of the East Asia three countries is characterized by richness in understanding human beings. The proposals by the sirhak scholars in the fields of norms and institutions, reforms in livelihood matters and legal system, and moral maturity reflect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social members and subjective individuals. Their social reform proposals represent the intellectual growth of subjective individuals living through the Chosŏn dynasty. The sirhak scholars, while humanizing human beings as subjective actors, continued to seek for the answers to what constitutes human beings. Moreover, they tried to observe and define humans in light of their mutual relations rather than as self entity.

The sirhak scholars was toward constructing subjective view of human beings based on the self-awareness to foster spirits of humanism. They illustrated human beings devoted ethical behaviors and social harmony, and had a belief in sociability and reciprocity in human existence. Therefore, their first task was to transform themselves before advancing to bring any innovation to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ir age.

Traditional humanities in the 21century may look for ways how to achieve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natural worlds, and how to gain ideologies and ethics needed to preserve human subjectivity. To get inspirations for conducting these tasks, we may turn to the revival and

reinterpretation of the humanistic tradi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the Practical Learning.

Newly oriented tendency of the Practical Learning of Korea aims at seeking ways how to realize fully human dignities and values as well as how to live an aesthetics life. In such study, it may be hoped that a new paradigm of 'life-centered humanities' can be created to reconstruct new relations not only among human beings but also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rediscovery of the Practical Learning of these three East Asian countries will prove to be useful in producing new perspectives to understand the humanistic tradition of Korea, and also in creating a practical philosophy required by the future.

〈Key words〉 Practical Learning (sirhak), humanistic tradition of Korea, China, Japan,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growth of subjective individuals